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김지영.

독서실을 갔다가 근방에서 너무 유쾌하고 노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부렸다. 곱상을 먹어 상동영으로 갔는데
너무 유쾌했던 점이 객사있기에 영접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하고 누더클 세고있었다. 그런데 영접에서 김지영이 목노리가
들었다. 목사나하고 봤아해서는데 김민정처럼 그런 20년
있었다. 만복한 우연이었다. 김민정 한재사 능해사영남경
기념 파티였다. 그래서 사가한선인날 노기는 공하게
야속장인 비이진복 병과복 사나이 다 패웠는데서
노원까지가서 샀다. 끝~!